

<2016년 세계도시문화포럼 모스크바 총회 참가 결과>

1. 상세 일정

일자	시간	방문기관/장소	업무수행 세부내용
10.4 (화)	11:00	인천공항	[출국] 인천(13:10) ⇒ [도착]모스크바 Sheremetyevo International Airport(16:15)
	18:00	Hotel Metropol	도착, 참가자 등록, WCCF 사무국과 일정 협의
10.5 (수)	10:00		시청 도착, 다과
	10:20	모스크바시청	개막식 : 모스크바 시장, WCCF 의장 환영사 기조연설(Keynote), 모스크바시 문화정책 환경 발표
	11:20	Kremlin(크렘린궁)	크렘린궁 도착(11:50), 궁전 투어
	12:20	문화투어	아이스 브레이커(Ice-breaker) : 참석자끼리 인사
	15:00 -16:30	Moscow Multimedia Art Museum (모스크바 멀티미디어 미술관)	패널세션(Panel Session) - Weaving the golden thread : cultural leadership beyond our role
	16:45 -17:30		엑스포(WCCF Expo) - 회원도시별 정책 사례 발표 및 토론
	19:40 -22:00	Pushkin Museum (푸쉬킨 박물관)	박물관 투어 모스크바 문화전문가들과 리셉션 (Reception)
10.6 (목)	09:30	Vystavka Dostizheniy Narodnogo Khozyaystva	문화공간 투어 (VDNKh : Exhibition of Achievement of National Economy)
	11:30 -13:00	Meat Pavilion of VDNKh	패널세션(Panel Session) - Breaking boundaries : bringing culture into the climate change
	15:30 -17:30	Moscow Garage Museum of Contemporary Art	분임워크숍(Breakout Sessions) [주제 1] Creative Power vs. administrative order : new models for support and delivery [주제 2] Making space for culture
	17:30 -19:30	버스 이동 중	2017년 총회유치 관련 협의 - 런던 부시장, WCCF 자문그룹, 사무국 담당자
	20:00 -22:00	Pashkov House	공식 만찬 (Gala Dinner) - 회원도시 및 모스크바 현지 주요인사 참석
10.7 (금)	08:00	Hotel Metropol	2017년 총회유치 관련 협의 - 런던 부시장, WCCF 자문그룹, 사무국 담당자
	10:00	ZIL Cultural Centre	공개 세미나(Public session debate) - What next for culture in world cities? (고홍석 본부장 토론 패널 참가)
	11:30		공개 세미나 참석자들과 네트워킹
	13:40		폐회식(Closing) : 2017년 유치도시 발표
	15:00 -17:00	Stanislavsky Electrotheatre	폐막만찬 및 2017년 총회유치 관련 협의
	19:00	Stanislavsky and Nemirovich-Danchenko Moscow Music Theatre	오페라 The Love for Three Oranges 관람
10.8 (토)	16:40	Sheremetyevo International Airport	[입국]모스크바(20:55) ⇒ [도착] 인천(9일 11:10)

2. 출장기 (주요 정책적 시사점 등 포함)

문화가 세계도시들의 미래를 리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총회(Summit)가 지난 10월 5일~7일 3일간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Creating the Future : Culture taking the lead in world cities”로, 세계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전 세계 문화정책 일선에 있는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총회를 기획한 WCCF 사무국에서 예상한 해법은 “영역의 경계와 행정의 질서를 넘어서는 창의적인 리더십”이었고,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의 대화의 결론은 “해답은 각 사회의 맥락에 따라서 선택할 것”이었다.

소비에트 실용주의의 육중한 건물들 위에서 빛나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 첨탑들

평소 길어야 40분 걸리는 거리를 2시간 반 동안이나, 모스크바 시청에서 픽업서비스로 보내준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보내는 호강을 누리며, 총회 공식 호텔에 도착했다. 지독하기로 소문난 모스크바의 교통체증, 소비에트연방 시절 관료들의 힘이 아직도 견재하기에 가능할 법한 과공(過恭), 소비에트 시절 관청 및 관료들의 숙소로 쓰였다는 거대한 규모의 메트로폴 호텔, 불쇼이 극장 바로 옆 몇 블록이나 될 것 같이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의회 건물, 곳곳에 울퉁불퉁하게 솟아있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의 첨탑들, 국적을 가늠하기 힘든 축제 행사장 아치들, 그리고 그 뒤에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문구 위에서 손을 치켜들고 서 있는 마르크스 동상.... 왠지 남한보다는 북한과 더 친할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로 모스크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비에트 시절의 유산이 모스크바의 문화정책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모스크바에서의 첫날을 시작하였다.

모스크바는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서 지위를 18세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내주었지만, 1991년 이후 소비에트연방의 수도로서 다시 세계 도시의 위상을 되찾았다. “스탈린주의 건축에 따른 웨딩케이크 모양의 첨탑 고층빌딩과 흐루시초프의 기능과 경제성 원칙에 따른 신발상자 모양의 건축물¹⁾”은 바로 모스크바 친구들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소비에트 시절의 유산이다. 반면 크렘린 궁과 붉은 광장을 내려다보는 성 바실리 대성당을 비롯한 러시아 정교회 첨탑들은 오히려 그런 직선들과 대조되어 더 빛난다. 사실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둘 다 중요하고 요긴하게 쓰일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건축물이나 남의 얘기 같

1) “세계도시를 읽다” 장친난 지음, 양성희 옮김, 안그래픽스

은 역사로만 보지 않고, 그에 얽힌 자기 삶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에게는, 어느 한 쪽이 마음의 안식처라면, 어느 한 쪽은 찢어내어 버리고 싶은, 오래되지 않은 과거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자본은 이런 개인들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문화유산들을 <개발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한다. 모스크바의 건축유산들이 유리 루슈코프 전 모스크바 시장의 무질서한 개발 정책에 따라 위험에 처했다는 뉴스도 있었다²⁾. 문화유산 보호론자들에게는 무질서한 개발정책이었겠지만, 이 또한 당시 시장에 의해서는 “문화도시 만들기” 정책으로 홍보되지 않았을까?

도시의 미래, 문화의 역할

세르게이 소바닌(Sergei Sobyenin) 모스크바 시장은 개막식에서 400여개의 공공 공원 재정비 사업의 성과를 자랑하며, 모스크바를 문화도시로 소개하였다. 소바닌 시장은 취임 후 무제온 예술공원(Muzeon Park of Arts), 고리키 공원(Gorky Park) 등을 문화적으로 재생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시책을 펼쳐왔다. 소바닌 시장은 개막 연설에서 “예전에는 도시들이 공장을 유치하려고 싸웠다면, 지금은 창의성, 재능, 투자, 도시 개발 효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싸우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수용소 군도”로 유명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렉산드르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의 부인이면서 동지였던 나탈리아 솔제니친(Natalia Solzhenitsyn) 여사가 기조강연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변화의 속도에 무서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고, 시대의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가능하고, 그것이 보다 “문명적인 인간상”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WCCF 의장을 맡고 있는 저스틴 사이몬스(Justine Simons OBE) 런던시청 문화부시장은, “미래 도시의 상을 상상하고 구상해내는 것”이 바로 세계도시 문화정책가들의 숙제라고 제시했다. 지금 세계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도시 인구의 급증, 자가 상승과 주거난, 환경문제 해결에서 문화가 “황금 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WCCF의 오래된 토론주제이다. 어쩌면 모스크바에 모인 23개 세계도시 대표단들³⁾은 모스크바 시장의 정치적 주문, 솔제니친 여사와 같은 시민사회의 문화적 우려, WCCF 의장이 그리는 문화정책가로서의 리더십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사흘간의 총회에 참여한 것이다.

2) “붕괴 위기 처한 모스크바 건축 유산”(연합뉴스, 2009.07.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779080>

3) WCCF의 회원 도시는 총 25개 국가의 33개 도시인데, 이번 총회에는 23개 도시만 참여하였음. 참가한 도시는 서울, 도쿄, 상하이, 홍콩, 선전, 싱가포르, 런던, 에딘버러, 암스테르담, 브뤼셀, 파리, 이스탄불, 스톡홀름, 마드리드, 모스크바, 비엔나, 바르샤바,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몬트리올, 토론토, 부에노스아이레스

영역을 가로지르는 문화정책의 리더십 (Weaving the golden threads-cultural leadership beyond our role)

WCCF에서 생각하는 미래의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역할은 이번 총회 첫 번째 세션의 주제로 설정되었다. 바로 “영역을 가로지르는 문화정책의 리더십”이다. 보다 문화적인 도시로서 조금은 상황이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런던의 문화부시장도 런던 도시계획에서 문화분야 계획은 달랑 1페이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도 런던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문화플랜이 있지만, 물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서술한 도시계획이 더 강력한 실행력과 구속력을 가진다.

토론 패널들은 이론가들이 아니고 현장 실무자들인 만큼, 다른 정책영역과 소통은 결국 “안면 행정”이 중요하다는, 만국 공통의 진리를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뉴욕시에서는 보건, 이민, 도시설계 담당 부서에서도 상주예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상하이에서 온 참가자는, 가운데 존재하면서 배우러 오기를 기다리는 “uni-versity” 방식에서 탈피하여, 문제가 있는 곳으로 전문가를 내보내는 “multi-versity” 방식의 문화기업가 양성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진 Expo 세션 중 하나가 암스테르담 시청에서 작년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Leadership Programme)”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었다. 런던의 유명한 빅댄스 (Big-Dance) 연출가이기도한 저스틴 사이몬스 부시장은 브레인스토밍 내용을 직접 정리하면서, 경계를 가로지르는 문화적 리더십 만들기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리더십에는 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는 활동가 정신,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 기질, 본인의 고유한 가치를 믿는 자부심(Authentic to yourself)까지 폭 넓게 제기되었다.

창의적인 공공정책의 핵심은 자율성? “Creative Power vs. administrative order”

다음 날 진행된 분임토의 주제 중 하나인 “Creative Power vs. administrative order” 역시, 예술가로서 문화행정의 수장을 맡고 있는 그의 문제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사무국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BOP 컨설팅의 연구진이 귀띔해주었다.

모스크바 Solyanka State Gallery의 Fyodor Pavlov-Andreevich 관장의 폭로성 발표는 매우 논쟁적이었고, 마지막 날 공개 토론회에서도 확인되는 모스크바의 문화계의 기류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아방가르드한 행위예술가로 세계적으로도 꽤 알려진 그는 직접 미술관 재원조성을 위해 본인의 몸을 관객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맡기는, 나체의 최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하였다. 최근에 이 미술관에서 예정된 행위예술작품이 당국의 검열로 불허된 사태를 소개하였고, 런던에서 온 참가자는 함께 배석한 한 모스크바 시청

문화 정책 담당자에게 “자유가 없는 미술관 관장이 도대체 무슨 정책적 역할을 할 수 있나?”는 돌직구를 날렸다. 세계도시 친구들을 불러 모아 놓고 문화도시임을 자랑하던 모스크바 시청의 문화 담당자는 “그는 많은 미술관 중 하나의 박물관을 담당하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 놓았다.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블랙코미디였다. 공교롭게도 이 분임토의는 개막식에서 모스크바 시장이 자랑했던 공원 재정비 사업 중 핵심 사업인 고리키 공원 안에 있는 Garage Museum of contemporary Art에서 진행되었다.

문화정책과 기후변화

여러 정책영역을 가로지르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정책의 리더십을 기대하는 이번 총회에서 의욕적으로 도입한 것이 둘째 날 개최된 “기후변화와 문화정책 세션 : Breaking boundaries-bringing culture into the climate conversation”이었다. 세계도시들 간의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된 C40 기후리더십 그룹 (C40 Climate Leadership Group)의 대표 Anna Beech와 NGO단체인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의 Alison Tichell 대표가 패널로 초대되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거듭거듭 역설했다. WCCF 사무국에서는 올해 세계도시들의 우수 정책사례집을 만들면서,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하나의 별도 주제로 제시했지만, 실제 사례가 별로 없어 어려움을 토로해오고 있었다. 이날 발표된 사례도 샌프란시스코의 친환경 건축 공법으로 지어진 문화공간 정도였다. 줄리의 자전거에서는 축제나 문화행사에서 자원 낭비 줄이기를 포함하여 문화예술단체가 실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경영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예술계의 준비는 아직까지는 미진하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스크바에서 발표한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과의 상관관계였다. 문화예술이 도시의 환경을 보다 살기 좋게 하면서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듯이, 공원녹지도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화된 도시에서 도대체 “좋은 것”이 “계속 좋은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문제들, 서로 다른 맥락에 따라야 할 해법들

행사 마지막 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개 정책토론회는,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인 ZIL Culture Centre에서 개최되었다. ZIL Culture Centre는 1937년 모스크바에서 최초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진 문화시설인데, 당초 Likhachev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지어졌다고 한다. 그 동안 각 도시의 문화정책 담당자들끼리 속내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총회의 관행을 깨고, 올해 처음으로 일반인들을 초청한 정책세미나였다. 온라인으로 방송되고,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취지에 ZIL Culture Centre의 장소성은 충분히 부합하는 듯 하였다.

하지만 “미래의 문화정책 어젠다 : What next for culture in world cities?”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결국 모스크바 문화예술계와 문화정책 당국 간의 긴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두 살쥘으로 보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려며 질문하는 아빠는, 정부가 지나치게 공공문화시설 중심으로만 투자하고 관리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담아서, 민간영역 문화기관들에 대한 재원조성 방안과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물었다. 오히려 가장 자본주의화 된 뉴욕에서 온 패널은, 세금을 낸 시민이 의사결정 하는 정부예산과 기부자가 혼자 결정하는 기부를 통한 재원 조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드리드에서 온 패널은, 설사 영리추구형 문화사업이라도 그 기반이 되는 토양을 조성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자원들이 더 이상 국가 소유가 아닌 상황에서 여전히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해야 할지를 불명확하고, 국민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스페인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였다.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시 고흥석 문화본부장은 “세계 도시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해법은 결국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전날 모스크바 시청에서는 소련시대의 문화적 유산을 보여줄 요량인지, 본인들의 문화적 인식의 범위를 보여줄 요량인지, VDNKh 산업 박람회장으로 참가자들을 가이드 투어시켰다.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로서, 소련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연방국가였다. 추운 날씨에 불평이 얼굴에 한가득 담긴 영어 통역자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 현지 가이드는 열정적으로 소련 시대의 영광을 소개했다. “Cosmos - Birth of new age” 전시관에서는 우주개발에서 미국을 앞섰던 소련의 영광을 “역사적 유물 진품”을 통해 확인해 주려고 애썼다. 소련은 1950년대 이후 국가의 명예를 걸고 미국과 우주 개발 경쟁을 벌였다.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쏘아 올렸고,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유리 가가린,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인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등을 배출하는 등, 역사적 사실에서는 분명 미국을 앞섰다. 하지만 열악한 전시장 시설에서 확인되듯이, 그것은 역사적 유품의 진열해 놓고 옛 영광을 선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역사적 유산을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본다면, 전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의 역사, 특히 인류 최초의 우주개발 역사를 문화정책의 눈으로 보아 주지 않을 이유도 없다.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과 동시에 그 유산에 대한 자긍심 간의 묘한 긴장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다. 세계도시문화리포트(WCCR) 2015에서 서술하였듯이, 모스크바 시장을 포함하여 모스크바인들은, 공원을 비롯한 도시공간과 환경 전체를 문화로 인식하는, 광의의 문화개념을 사용하는 듯 하였다. 이처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정치, 사회적 맥락이 다른 도시들이 모여서, 같은 문제사례를 공유하되,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서 적용을 수

있는 해법은, 그 도시의 맥락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진품 착륙 캡슐들이 전시되어 있는 “Cosmos - Birth of new age” 전시관에서 흥미를 끄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전시품은, 다름 아니라 우주인들이 사용한 망치였다.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망치질의 반작용으로 우주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작용을 줄이는 특수 망치를 썼다는 것이다. 너무나 단순한 망치조차도 중력이 있고 없는 환경의 맥락에 따라 단순하게 똑같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내년에는 서울에서, 문화도시에서 문화시민도시로

서울이 내년 총회 유치도시라는 사실은 총회 첫날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서울시청과 런던시청 간의 내년 총회 준비를 위한 회의를 지독한 교통체증 때문에 결국 버스 안에서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폐막식에서 다음 개최지 발표의 신선함은 없었지만, 다들 서울 총회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회원 도시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에서 아시아적 맥락을 반영해보자고 의기투합하기도 하였다.

2017년 총회의 주제는, 서울문화비전 2030과 연계하여, “문화도시에서 문화시민도시로 -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The Creative-civic City : By the citizens and For their Happiness)를 제안되었다. 기존의 도시마케팅 중심의 <창조도시>와 인프라 중심의 <문화도시> 만들기에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시민도시>로, 세계도시들이 문화정책의 중점을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초청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협업 워크숍 방식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정책개발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Leadership Programme)이 처음으로 병행될 예정이다. 유럽 중심의 문화정책 논의가 아시아로 넘어와서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해볼 일이다.

<행사 현장 사진>

1일차 _ 개막식(모스크바 시청)



총회 개막식에서 모스크바의 문화도시 면모를 자랑하는 세르게이 소바닌(Sergei Sobyenin) 모스크바 시장



알렉산드르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의 부인이면서 동지였던 나탈리아 솔제니친(Natalia Solzhenitsyn) 여사의 기조강연



개막식 직후 전 참가자들 기념촬영
세르게이 소바닌(Sergei Sobyenin) 모스크바 시장, 저스틴 사이몬스 런던시
문화부시장(WCCF 의장) 등

1일차 _ EXPO 세션 (Garage Museum)



Expo 세션 중 문화정책 리더십 브레인스토밍 내용을 직접 정리하고 있는 저스틴 사이몬스 런던 문화부시장 (사진은 별도파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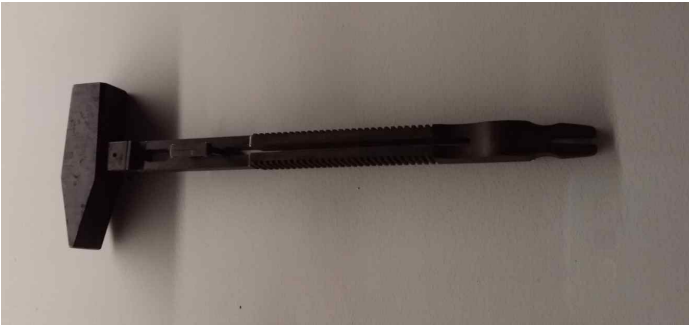
2일차 _ VDNKh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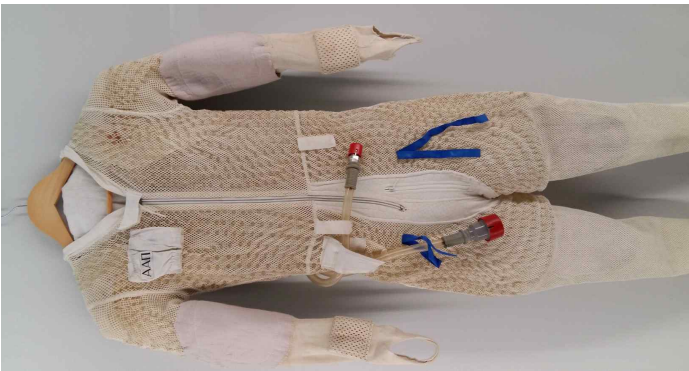
소비에트연방 시대의 영광을 전시한 VDNKh 산업 박람회장과 그 앞에 서있는 레닌동상



산업박람회장 안 COSMOS 전시장 중 - 영광스런 우주비행사들 포스터



우주인들이 쓴 망치



우주인들이 입었던 옷



실제 사용된 착륙캡슐



산업박람회장에 있는 “우애의 연못” - 소련 연방 16개 국가들을 상징하는 여신들의 동상인데, 핀란드가 독립하면서 15개로 줄었다.

2일차 _ 분임워크숍 (Creative Power vs. administrative order)



고리키 공원 안에 있는 Garage Museum of contemporary Art과 그 전시

2일차 _ 2017년 총회관련 협의



2일차 _ Finance Report 관련 협의



2일차 _ 공식만찬 (Pashkov House)



3일차 _ 공개 세미나 (ZIL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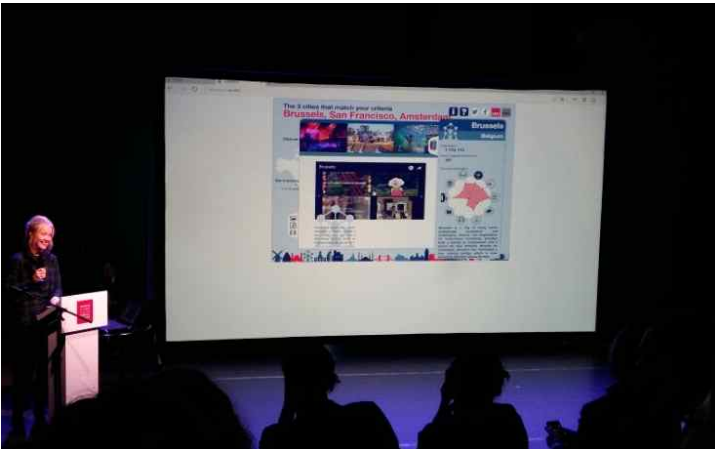


총회 마지막 날 ZIL Culture Centre에서 진행된 공개 정책세미나



ZIL Culture Centre 전경

3일차 _ 폐막식 (Stanislavsky Electrotheatre)



폐막식 : 파리시에서 개발한 세계도시 매칭 웹사이트 시연 및 2017년 개최지 발표



폐막식 : 담당자 격려

<기타 모스크바 문화 탐방>



테트리스 메인 화면에 나온다는 성 바실리 대성당

성 바실리 대성당(러시아어: Собор Василия Блаженного 흐람 바실리야 블라췌나바[*])은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다. 모스크바 대공국의 황제였던 이반 4세가 러시아에서 카잔 한국을 몰아낸 것을 기념하며 봉헌한 성당이다. 1555년 건축을 시작하여 1560년 완공하였다. 러시아 양식과 비잔틴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47미터 되는 팔각형의 첨탑을 중앙으로 하여 주변에 8개의 양파 모양의 지붕들이 배열되어 있으며 예배당을 형성하는 4개의 다각탑과 그 사이 4개의 원형탑이 솟아 있어 총 9개의 탑이 있다. 탑들은 서로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으나 그 곳에서 조화로움이 보인다.



첫날 가이드 투어 한 크렘린 성 안의 고전적인 양식의 첨탑들



붉은광장과 크렘린 성, 멀리 보이는 바실리 대성당



볼쇼이 극장 건너편에 서 있는 마르크스 동상



시내 곳곳에 세워진 축제행사장 아치... 국적을 알 수 없다며 불만이라고도 했다.